



# 美術作品을 통하여 본 齒科医学

대한치과의사협회보협이사  
금·성·치·과·원·장

金圭炫

## Chronicle of African Art

—MOUTH AND TEETH OF THE BLACK

AFRICAN MASKS (EASTERN NIGERIA) —

<작자년대미상(개인소장)>

아프리카 토착민의 예술을 이해하는데는 그들의 생활 풍속과 전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아는 언어로는 종족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발가벗은 인체 어느곳에인가 그들이 알고 있는 무늬를 즐겨 그렸고 그 무늬에 언어이상의 많은 내용을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 하였다.

그외에도 머리의 형태를 색깔을 칠한다던지 귀를 크게 한다던지 입술에다 point을 준다든지 치아에도 특징을 두었다. 인체 중에서 살아있는 동안 뿐만아니라 죽고난후에도 곧 종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치아는 좋은 대상이 되었다.

치아 중에서도 전치에 포커스를 주워 정중선을 경계로 넓힌다든지 삼각형으로 깎는다든지 치아 자체를 빼버려 동료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 하였다. 그외에도 치아 착색(먹는 식물에 따라서)하여 멀리서도 종족을 알고 보존하는데 정성을 기 하였다.

이 고대 아프리카 조각에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의 숨은 동기를 이루는 근원적인 욕망을 나타낸다고 하며 치주질환을 앓은것 같은 치관이 길고 치근이 짧은 형태로 원시 사회의 치의학적인 묘사가 잘 나타나 있다.

=알 림=

本欄은 지난 32회에 끝 맺고져 했으나 執筆者인 金圭炫 博士의 끈질긴 努力에 向後 約 10回分을 蒐集하는데 成功하여 繼續 連載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研究와 精進을 指向하는

# 寶城合金 寶城齒科技工所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신동 465

代表 朴 允 三

☎ (53) 3411 (55) 3024